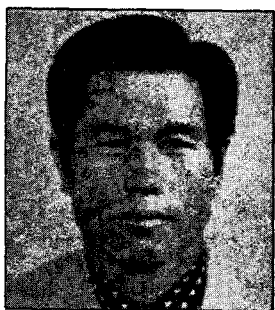


# 교수님께 드리는 글



김 동 봉

경남 고성군 대가면 유흥리

본 글은 지난 6,7월호에 게재된 김 성훈 교수의 “재벌과 농민”이란 글을 읽고 답신으로 본회로 글을 보낸것을 게재한다.

교수님! 저는 멀리 경남 남해안에 있는 한 산촌마을에서 쪼소 10여마리를 기르며 가난하지만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살아가는 한 농부입니다.

「낙농육우회보」 7월호에 「재벌과 농민」이란 제목으로 기고해 주신 교수님의 글을 읽고 농민으로 태어난 서러움과 울분에 혼자 몸을 떨며 이 편지를 띄웁니다.

롯데기업이 뉴질랜드와 합작으로 치즈공장을 세우려 한다는 보도를 이번 처음 대하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새삼스레 이렇듯 설움이 북바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일까요….

교수님! 우리 농민은 귀와 눈도 어둡거니와 말하는 입은 병어리가 된지 오래였습니다.

멀쩡한 이목구비를 갖추어 달고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며 말하지 못하는 바보, 떠중이가 되어 버린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 농부의 좁은 식견으로는) 잘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두 가지 사실만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하지 않으면 안될 무형의 압력 때문이었으며 또 하나는, 이들을 바로 보고, 듣고, 말할수 있도록 깨우쳐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교수님! 이 농부가 교수님의 글을 읽고 통탄해 하면서도 한편으론 기쁨을 금치 못하는것은 아마도 이제까지 잃어버리고 퇴화되었던 한 기능을 교수님의 깨우침으로 조금은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라 하겠읍니다.

우리나라에는 농촌관계 교육, 연구기관이나 농업 분야의 대학에 종사하는 유능한 학자, 지식인들이 수없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농업의 기술지도에는 조금도 인색함이 없었다고 하겠지만 농민의 의식을 일깨우는 학자와 지식인은 어찌 그리도 적은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거대한 도시자본에 밀려 오금조차 펴지 못하고 날로 쪼그라 들기만 하는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려거나 대변해 주려는 언론은 왜 그렇게 드문지 알 수 없습니다.

철새 몇 마리 죽었다고 대문짝만한 사진을 내며 온 매스컴이 범석

이제 농민은, 우리 낙농인은 어떠한 형태로든 조직의 힘을 새로이 뭉쳐 우리가 살 길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대는 언론이, 젊음을 농촌에 파묻고 잘 살아 보려고 발버둥치다가 빗에 쪼들려 숨져간 농촌후계자의 얘기가, 색시를 구하려다 끝내 구하지 못하고 비관하여 고귀한 생명을 버린 농촌 청년의 슬픈 사연은 왜 어느 한구석에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입니까?

「잘살아 보세」란 농어촌 TV프로를 만들어 얼룩소 사진을 비추면서 그것이 농촌이 잘사는 표본인양 농민의 입을 빌려 잘산다고, 부자라고 떠들게하던 그분들, 지금은 어디서 또 농민의 피눈물을 웃음으로 변장시켜 보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교수님! 이 농부가 교수님을 진심으로 우러러 감사를 드리는 것은, 어떤 재벌이 농민의 딱한 처지는 아랑곳없이 치부에만 급급하려는 그 파렴치한 기업풍토를 크게 꾸짖고, 또 그런 업무를 다루는 주무관청의 무성의한 책임자의 정신자세를 나무라며,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잘못을 아무 거리낌없이 바로 통박해 주신 점에도 있겠지만 보다는, 한 학자의 양심으로 어렵고 약한 계층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시고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두드리 주신 용기있는 결정에 더없이 존경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교수님! 아시다시피 우리 농민은 딛고 설 땅도, 기대어 버틸 언덕도 없는 사면초가가 되었습니다.

농민도 힘을 합치면 되지않겠느냐—고 하시겠습니까? 분명 농민을 위한 조직과 단체는 적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농민들이 도시의 대자본에 대처하며 농민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각 분야별로 농, 수, 축협을 만들었고 또 성격은 약간씩 달라도 작고 큰 단체도 허다 합니다.

그런데 이들 조직과 단체중 진실로 자기 조직원을 위하는 조직체로서의 기능과 몸가짐을 갖추고 있는 곳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약한자 끼리 힘을 모아 강한 자의 부당한 횡포를 막고 자기를 보호, 대변해야 할 농민 조직이 오히려 견제해야 할 자의 이용물로 변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왜, 농민의 최소한의 권리와 지위를 이토록 짓밟아 버렸고, 주인을 몰아내고 머슴이 주인 행세를 하는 오늘의 농민조직 구조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농촌, 농민의 현실이 이렇진대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고 누구와 함께 힘을 모아 야 합니까!

이 농부의 울분이 큰것은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 이제 농민은, 우리 낙농인은 어떠한 형태로든 조직의 힘을 새로이 뭉쳐 우리가 살 길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언제까지 비교우위론의 희생물로 이대로 앉아 당할 수 만은 없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먹을 쥐며 눈을 부릅뜰 수 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교수님! 새벽 별 보고 일어나 젖 짜고, 똥 치고, 풀 베기에 저녁 별 보고야 일손을 놓는 우리 젖소 기르는 농부들,

— 그저 가족과 같이 세끼 밥 걱정없이 먹고

부채나 벗고 훌가분하게 한번 살아 봤으면  
하는 이 작은 소망이 정말 죄가 되는 것일까요?

1년 열 두 달 하루도 쉴 새 없이 지겹도록 일만하는 우리들, 그저 가족과 같이 세끼 밥 걱정없이 먹고 부채나 벗고 훌가분하게 한번 살아 봤으면 하는 이 작은 소망이 정말 죄가 되는 것일까요?

1년에 외국으로부터 2만여 톤이나 유제품을 수입하면서 우리가 생산한 몇천톤의 우유가 남는 다해서 소비 확대, 수입 억제, 새로운 제품개발등 허다한 다른 해결 방법은 전연 강구해 보지도 않고 이치에 합당치도 않은 생산할당제부터 내어놓으며 정부당국은 뒤에서 구경만 하고 유업체와 낙농가를 싸움 붙이려하니, 이는 쥐꼬리만한 낙농가의 소득마저도 재벌에게 송두리째 빼아 넘기려하는 처사입니까...

우리가 언제 정당한 생산조절제를 거부했습니까. 생산이 소비보다 많으니 소비에 맞게 생산해야 됨은 우리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제도를 실시하기 앞서 선결할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생산자도, 소비자도, 유가공업자 그 어느 쪽도 해롭지 않은 공정한 제도적 장치밑에 생산조절을 실시해야지, 솔뚜경으로 자라잡는 식으로 낙농가의 목만 누르려하니 이 무슨 당치도 않은 행동입니까.

정부당국은 왜 뒤로 쏙 빠질려 듭니까. 권장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요.

「축산진흥기금」이란 명목으로 젖소 입식 농가로부터 받은 마리당 기 십만원씩의 돈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돈은 이에 쓸려고 떼어 둔 돈이기에 낙농업 관련분야가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지 못하고 언제 누구 줄려고 행방이 묘연 합니까...

교수님!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이란 화려한 구호가 아직도 우리들 귀에 생생한데 그 떠들석한 구호의 팻말은 지금 어디서 썩고 있길래 돈 많고 힘 있는 자만이 이토록 득세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을까요.

한 쪽에선 순진한 천성이어서 소 키우면 잘산다기에 정부 시키는대로 소를 키우다가 잘살기는 커녕 빗더미만 안고 도산 직전에 허덕이는데, 한 쪽에선 폐돈을 벌어 모아 놓고도 얼마가 더 모자라는지 낙농가의 밥줄마저 끊으려고 외국 우유 들여와서 치즈공장 세우려는 재벌 군(群)이 많습니다.

그 재벌도 다같은 한 나라 땅에 사는 사람, 언젠가는 똑 같이 흙속에 맨손으로 돌아 갈것을 왜 그렇게도 농민의 딱한 처지를 외면하여 낙농가의 이를 갈게 만들까요...

돈을 얼마만큼 벌면 끝이나고, 얼마만큼 모으면 만족하게 됩니까? 치즈공장 아니라도 기왕 잘사는 그 재벌, 이번한번쯤 우리나라 남은 우유로써 기술합작만으로 치즈공장 세우면 누가 나무랄 사람 있으며 누가 존경하지 않는 이 있겠습니까...

제발 우리 농민도 처자식 먹여 살리며 이 땅의 작은 백성으로 살 권리만은 빼지 않았으면 하는 소원이요. 응어리진 가슴에 더 이상 쇠망치질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교수님! 삶의 의욕도, 버티어 나갈 힘과 지혜도 없는데 농부에게 좌절하지 않도록 용기를 깨우쳐 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이 농부의 부질없는 탄식을 여기서 줄이려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가르침 있기를 바라며 삼가 건투를 빕니다.